

# 거시경제학

4주차 강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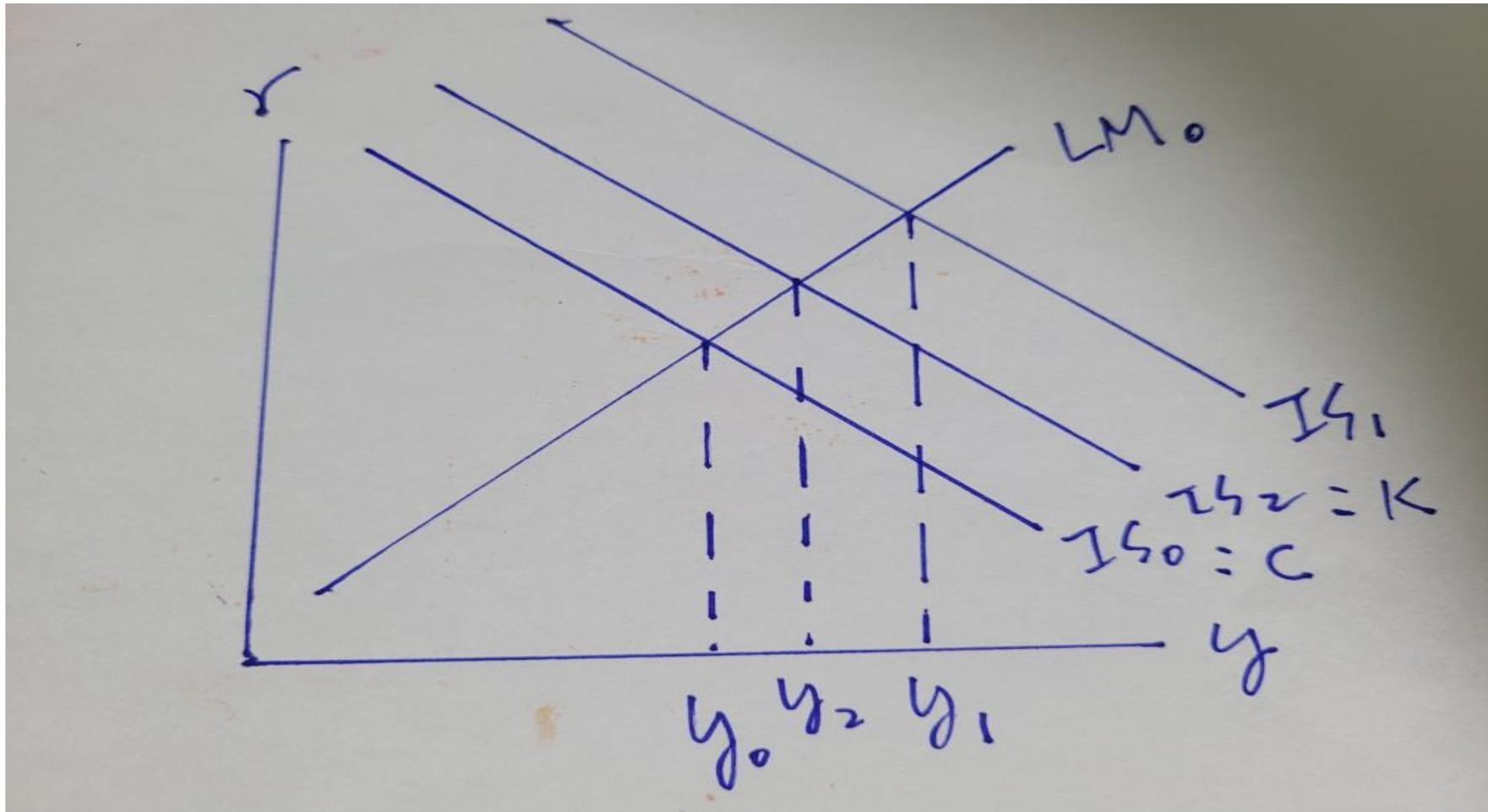
# 1.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의

- 구축효과는 확대재정정책으로 총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정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 그만큼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업이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 구축효과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밀어낸다는 점에서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한다.
- 재정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크기에 달려있다. 승수효과가 구축효과보다 크다면 확대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증가시킬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총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의 구축효과>



## <설명>

- 균형  $IS_0$ 와  $LM_0$  가정
- 만일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 $IS_0$ 가  $IS_1$ 으로 이동
- 이자율의 상승은 구축효과를 유발함
  
- 케인즈 학파:  $IS_2$ 로 이동하여  $y_2$  정도의 소득 효과가 발생
- 고전학파:  $IS_0$ 로 돌아와 (완전구축) 소득 효과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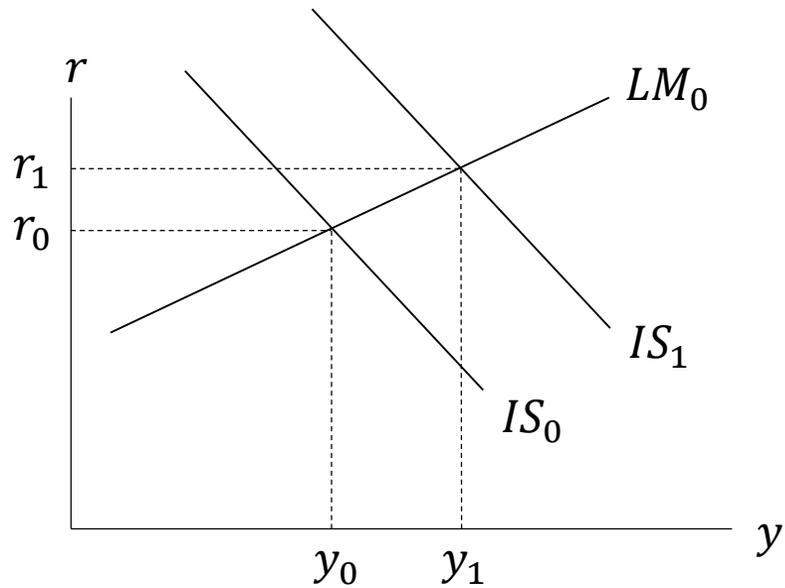
## 2.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의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견해

-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정부지출의 확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케인스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도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에 더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케인스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전망을 더 밝게 만들어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자극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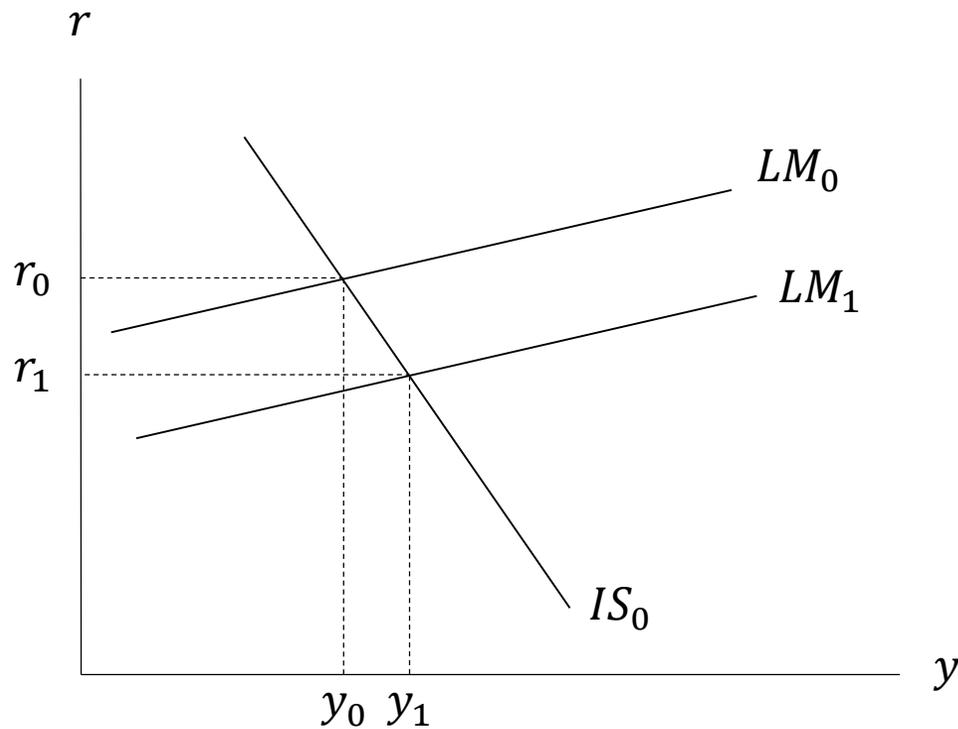
# 이것을 그래프로 설명해보면...

- 케인즈학파는 IS커브의 기울기가 크고, LM은 완만
- 결론 IS를 우로 이동하는 정부지출증가는 효율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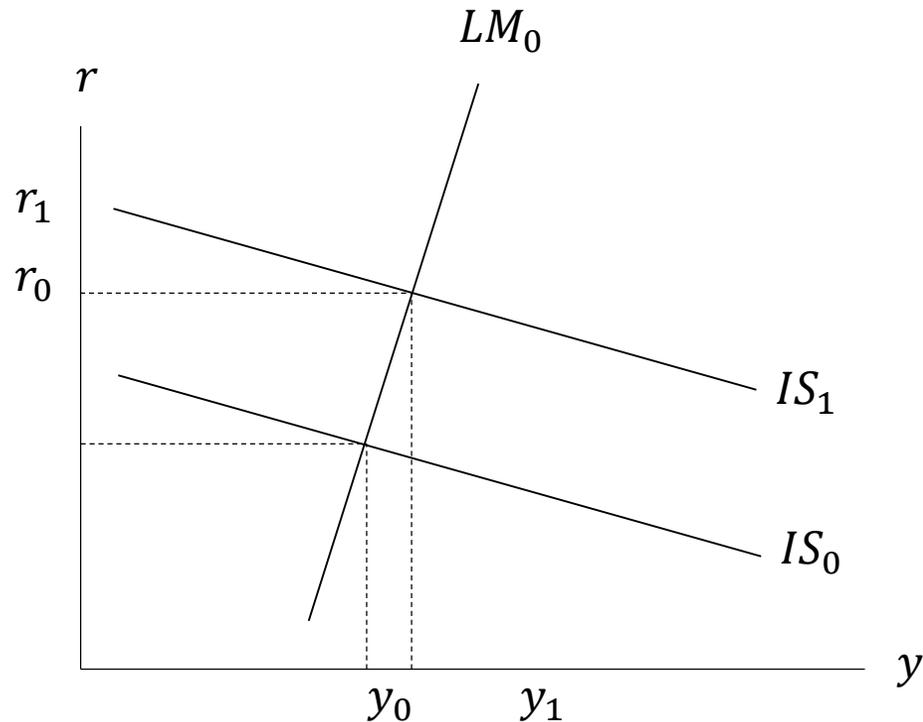
# 그러나, 화폐(금융)정책은 비효율적...

- 이자율은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는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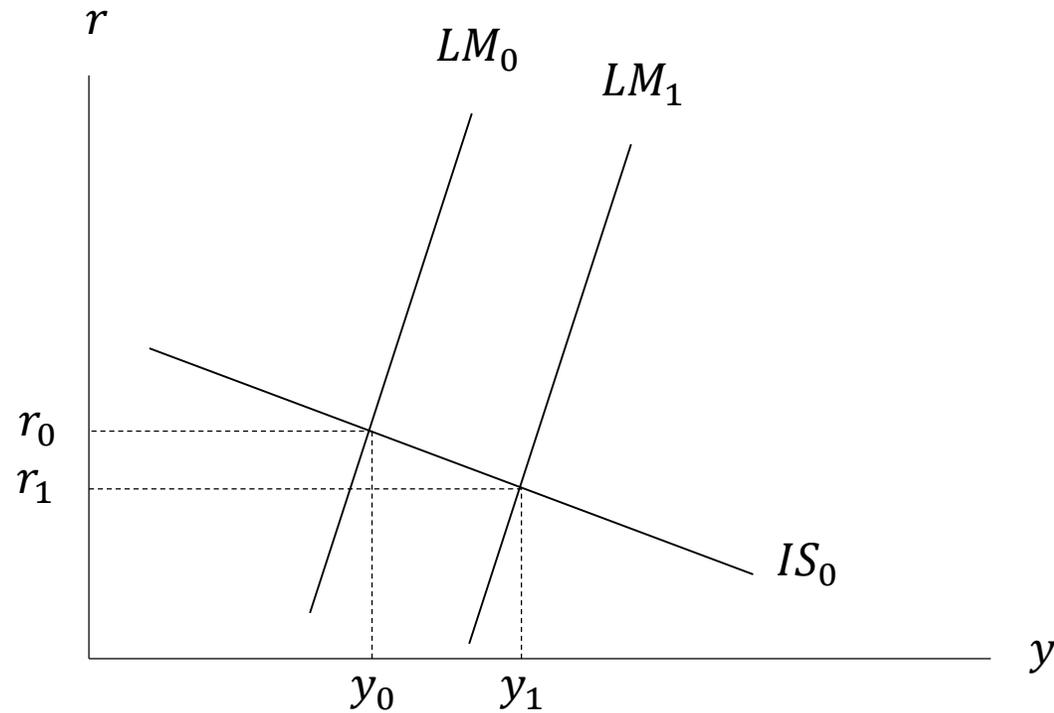
# 반대로, 고전학파에서는,

- 가파른 LM곡선과 완만한 IS곡선을 가정. 정부지출의 증가는 낮은 소득효과...



# 그러나, 화폐(금융)정책은 효율적...이유는?

\*



오늘은 여기까지...